

# 광주도시공사 “아! 한골”...종료 18초전 공격자 파울 ‘탄식’

### 핸드볼 코리아리그 오세일 감독 오심 항의하자 되레 경고카드 서울시청에 28-29 분패...정현희-정진희 자매 맞대결 눈길도

후반 종료 18초를 남기고 골문을 파고들던 광주 도시공사 정현희에게 공격자 파울이 선언되자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광주가 한 골만 넣으면 동점으로 가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심판의 휘슬이 울린 것이다. 오세일 감독이 ‘오심’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했으나 심판은 되레 경고카드를 내밀었고 경기는 그대로 종료됐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로써 시즌 2승2패를 기록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지난 15일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여자부 1라운드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 28-29(15-17, 13-12)로 패배했다.

주포 강경민(5골)이 절저히 봉쇄당한데 골문마저 따르지 않았다.

전반을 15-17로 리드당한 채 후반을 시작한 광주도시공사는 후반 11분께 6점차로 끌려가며 승기를 내준 듯했다.

하지만 후반 12분부터 추격을 시작해 28분26초에 송해수의 골로 1점차까지 따라 붙었으나 동점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결정적 찬스에서 공격자 파울로

1점차 패배를 당했다.

양팀 주전 골키퍼의 방어율도 승패와 궤를 같이 했다.

광주도시공사 손민지의 방어율이 28.9%인데 반해 서울시청 정진희는 42.9%를 찍었다.

이날 경기에서는 광주도시공사 라이트백 정현희(21)와 서울시청 골키퍼 정진희(23) 자매가 맞대결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정현희가 먼저 실업에 데뷔한 뒤 언니가 올시즌부터 실업 무대에 진출해 자매대결 무대가 열렸다.

정현희는 9차례 슈팅을 시도해 3골을 넣었다. 세 골 모두 언니 정진희가 골키퍼일 때 성공했다.

반대로 슈팅 6번 가운데 5번이 언니에게 가로막혔다. 결국 자매대결에서 언니가 웃었고 승리도 챙겼다.

한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13일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열린 2021-2022 SK핸드볼코리아리그 1라운드에서 부산시청공단을 33-26(14-13, 19-13)으로 제압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정현희(오른쪽)가 15일 광주 빙고체육관에서 열린 SK핸드볼 코리아리그 서울시청과의 경기에서 슈팅을 하고 있다. <대한핸드볼협회 제공>



러시아의 발리에바가 16일 에스토니아 탈린의 톤다라바 아이스 홀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 피겨스케이팅 유럽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매혹적인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 클로이 김, 스노보드 월드컵 우승

### 올림픽 2연패 청신호

클로이 김(22-미국)이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경기에서 우승했다.

클로이 김은 15일(현지시간) 스위스 락스에서 열린 2021-2022 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 결승에서 90.25점을 받아 89.00점으로 2위에 오른 오노 미츠키(일본)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부문 금메달리스트인 클로이 김은 지난해 3월 미국 콜로라도주 에스편에서 열린 월드컵 이후 10개월 만에 다시 월드컵 정상에 올랐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월드컵은 이번 시즌 총 세 차례가 열리는데 클로이 김은 앞선 두 차례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고, 시즌 마지막 대회에서 우승하며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부모가 모두 한국 사람인 클로이 김은 2018년 2

월 평창 올림픽부터 이번 대회까지 출전한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 총 8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다.

미국 명문 프린스턴대에 다니는 클로이 김은 평창 올림픽 이후인 2019년 선수 활동을 일시 중단했다가 지난해 설원에 복귀해 여전히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함께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히라노 아유무(일본)가 93.25점으로 1위에 올랐다.

미국의 ‘스노보드 전설’ 손 화이트(미국)는 84.00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평창 금메달리스트 화이트는 올림픽 이후 한동안 월드컵에 나오지 않다가 2020-2021시즌부터 월드컵 출전을 재개했으며 이번 시즌 세 번째 출전한 월드컵인 이번 대회에서 처음 시상대에 올랐다.

이번 대회 남자부에 출전한 이재은(16-북당중)은 출전 선수 46명 중 17위에 올랐다. 남자부 김강산(18-월계고)은 34위, 여자부 이나윤(19-수리고)은 28위를 각각 기록했다. /연합뉴스

## 러시아 피겨 발리에바 유럽선수권 우승

피겨스케이팅의 ‘기록제조기’ 카밀라 발리에바(16-러시아)가 유럽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전망을 밝혔다.

발리에바는 16일(한국시간) 에스토니아 탈린의 톤다라바 아이스 홀에서 열린 2022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유럽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4.58점, 예술점수(PCS) 75.03점, 감점 1점으로 총점 168.61점을 받았다.

프리스케이팅 세계기록(185.29점)을 보유하고 있는 그녀는 아쉬운 점프 실수로 자신의 기록을 넘어서지 못했으나, 1위는 놓치지 않았다.

13일 쇼트프로그램에서 여자 싱글 선수 최초로 90점을 돌파, 90.45점을 받은 발리에바는 합계 259.06점으로 러시아의 안나 셰르바코바(237.42점), 알렉산드라 트루소바(234.36점)를 수월하게 제치고 최

종 우승했다.

발리에바는 트리플 플립-트리플 투루프, 트리플 러츠는 안정적으로 소화했고, 스텝 시퀀스와 플라잉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린,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린에선 최고 난도인 레벨 4를 받았다.

4바퀴를 도는 쿼드러플 점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발리에바는 올 시즌 연달아 세계 기록을 갈아치우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ISU 시니어 그랑프리 6차 대회에서 총점 272.71점의 세계 신기록을 세웠으며, 최근 러시아 국가대표 선발전에선 총점 283.48점의 비공인 세계 기록으로 우승하기도 했다.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는 그녀는 여자 싱글 세계신기록 경신을 향한 도전도 이어간다. /연합뉴스

## ‘KPGA 황태자’ 김주형 골프 아시안투어 2승째

###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연장 우승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4관왕에 오른 김주형(20)이 아시안투어 싱가포르 인터내셔널(총상금 100만 달러)에서 우승했다.

김주형은 16일(한국시간) 싱가포르 타나 메라 컨트리클럽(파72-753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 보기 3개로 2언더파 70타를 때렸다.

최종 합계 4언더파 284타를 기록한 김주형은 라타는 완나스리찬(태국)과 연장전 끝에 연장 첫 홀인 18번 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2019년 11월 파나소닉 오픈에서 아시안투어 첫 승을 기록한 김주형은 26개월 만에 두 번째 우승의 감격을 만끽했다.

지난해 KPGA 코리아투어에서 제네시스 대상과 상금왕, 평균타수상, 톱10 피니시상 등 4관왕을 차지한 김주형은 새해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하며 궤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전날 3라운드까지 선두 완나스리찬에 2타 뒤진 단독 2위였던 김주형은 이날 6번 홀까지 보기 1개를 기록했지만, 7~9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으며 공동 선두로 나섰다.

김주형은 이후 11번 홀(파4)과 14번 홀(파3)에서 버디를 잡으며 단독 선두까지 올랐지만, 17번 홀(파4)에서 보기를 기록하며 완나스리찬(최종 합계 4언더파 284타)과 연장에 돌입했다.


김주형은 연장 첫 홀에서 약 6m의 버디 퍼트를 극적으로 성공시키며 우승을 차지했다.

만 14세 아마추어 골퍼 라치는 찬타나누왓(태국)은 4라운드에서 버디 7개와 보기 2개, 더블보기 1개로 3언더파를 기록,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 단독 3위에 올라 큰 인상을 남겼다.

한국 선수 중 김비오가 합계 3오버파로 단독 7위에 올랐고, 합계 5오버파를 기록한 문도엽은 공동 16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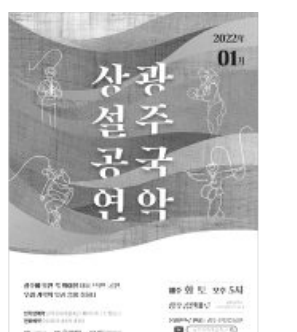
즐거운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특송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 3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 4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6관 경관의 피
- 9관 하우스 오브 구찌
- 7관 세네케를 쌍2개더, 클리포드 더 빅 레드 독,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8관 세네케를 경관의 피,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오타움 콘서트 I  
**로미오와 줄리엣**  
일시 : 2022. 01. 27.(목)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